



●정맥성 발기부전

-불안하면 잘 안돼요-

결혼한 지 3년이 넘은 공인회계사 L씨. 유명한 대학을 나와 몇십 번이나 선을 보아 얻은 미모의 부인을 3년 동안이나 처녀로 놓아둔 이유는 그 흔한 말로 발기부전 때문이었다. 자신의 남성이 결혼 전에도 별로 신통치는 않았지만, 우연한 기회에 경험한 몇 번의 외도에서는 성공을 했는데 어째서 자기 부인하고는 안되느냐고 하소연해왔다.

이혼을 하겠다는 아내의 손을 끌고 2년 전부터 몇몇 병원의 비뇨기과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모두 별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는 것이다. 정신과 병원을 찾아 부부간의 성감을 높이는 관능초점훈련이라는 심인성 발기부전 치료법을 써 보았지만 그것 역시 별 효과가 없었다.

남성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의 질경련증이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쳐갔다.

하지만 그것도 아니었다. 첫날의 발기유발제 검사에서 그는 평균 이하의 발기력을 보여주었고 그 나이에 보통 있어야 할 새벽 발기현상이 거의 없었다.

호르몬검사, 복합 도플러검사 등을 한 결과 그는 정맥성 발기부전이었다. 트라이믹스라는 발기유발제를 처방하고 며칠 안에 꿈같은 신혼이 시작될 것이라는 얘기와 함께 반신반의하는 L씨를 돌려보냈다.

결혼은 했는데 부부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처음 미국에서 보았던 '환자'도 결혼한 지 5년이 넘도록 관계를 하지 못했던 유태인 부부였다.

부인의 심한 질경련에다 남편의 정맥성 발기부전이었기에 특별히 기억에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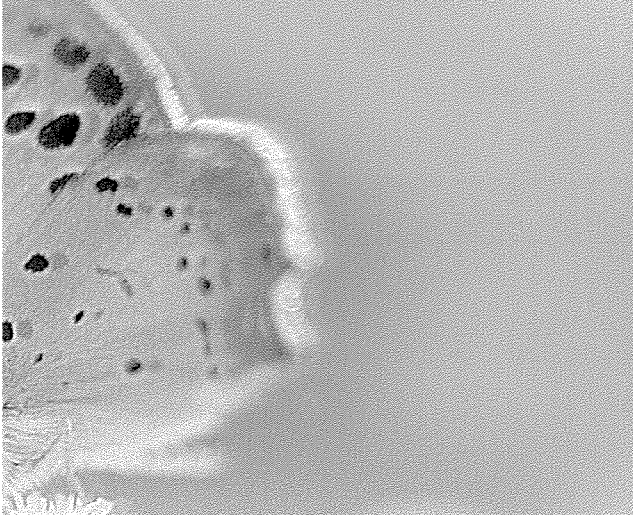
이와 같이 성공하지 못한 결혼의 원인은 크게 나누어서 성적 주체성의 장애나 정맥성 발기부전을 포함한 혈관성 발기부전, 여성의 질경련 등을 들 수 있다. 앙드레 지드처럼 동성애적인 경향 때문에 자기 부인을 평생 처녀로 지내게 한 경우는 성적 주체성의 장애다. 정맥성 발기부전인 경우, 동맥으로 들어오는 혈류의 유입량은 정상이므로 발기는 되지만 세기가 약하고 금방 죽는다. 40대 이전의 남성이 발기부전에 걸리는 것은 대개 심인성이지만 정맥성인 경우도 꽤 많다.

미국의 경우, 비뇨기과의 레지던트 교육과정은 8년이나 된다. 그야말로 한번 전문의 자격증을 따려면 일반대학과 의과대학 8년을 합쳐 16년 이상이라는 긴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하지만 미국의 전문의 중에서도 도플러 검사를 포함한 발기부전 클리닉은 특수분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극히 소수의 의사만이 취급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극소수이므로 L씨의 증세를 잡아내지 못한 것이다.

그럼 L씨가 직업 여성과의 관계에서 성공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그것은 경험이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질의 삽입은 보통보다도 강한 삽입강도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많은 의사들이 이런 환자를 심인성 발기부전이라고 진단해 버리기도 한다. 그러나 심인성인 경우는 성적 주체성에 이상이 없는 한 그렇게까지 부부관계가 불가능하지는 않다.

치료를 받은 다음 사흘만에 와서 하는 L씨의 말이 걸작이다. '원하는 만큼 성공은 했는데 아내가 너무 아파해서...' 였다.



■ 음경보형물

-발기부전 치료의 마지막 수단-

음경해면체에 보형물을 넣어 인공적으로 발기를 유발하는 인공보형물 삽입수술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그런데도 '동양사람들은 음경에 칼을 대자고 하면 다 도망친다'는 말을 미국에서 종종 듣곤 했다. 미국에서 비뇨기과를 전공했다면 두세 시간만에 끝낼 수 있는 보편화된 수술이 인공보형물 삽입수술이다. 50년대 초에는 아크릴로 만든 보형물을 사용했기 때문에 수술을 받은 사람의 음경은 늘 뺏혔한 상태였다.

70년대에 들어와서는 보형물도 조금 개량되어 실리콘과 고무로 만들어진 것을 썼다. 이 보형물 역시 항상 발기된 형태였지만 딱딱한 음경보형물은 각각의 해면체에 삽입이 되었다. 비슷한 시기에 물이나 수액을 넣어 팽창이 되는 보형물이 개발되어 펌프로 그 강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는 음경해면체에 들어가는 보형물과 교환에 장착하는 펌프, 그리고 뱃속에 넣은 생리식염수 저장주머니 등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 필요에 따라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 최근에는 펌프와 식염수 저장주머니를 함께 만들어 교환에 장치하는 두 부분으로 된 것이 개발되어 미국에서 선보이고 있다. 몇 년 전만 해도 음경보형물은 기계적인 고장이 발생하기도 하고 수술 후에 감염증도 일어나는 등 장기적으로 50%나 되는 높은 실패율을 기록하였다. 최근에는 혈신 발전하여 합병증 발생률이 10% 미만으로 줄어들었다.

대개 음경보형물 삽입을 원하는 사람들은 발기력 하나만을 섹스의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 부부간에 성적인 대화가 부족하면 보형물 삽입 수술을 받고 아무리 음경을 크게 하여도 기대한만큼 그다지 만족한 결과를 얻

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수술을 받은 환자의 약 50%의 경우에서 음경 크기가 오히려 더 감소하고, 물리적인 발기만 시키기 때문이다. 조루나 성욕 자체가 감소되어 있는 환자가 보형물을 삽입하는 경우도 그 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마찬가지이다.

발기부전 치료에는 발기유발제를 사용하거나 음경 보형물 삽입수술을 받는 방법 말고 진공흡입기를 사용하기도 한다. 80년대 초에 개발된 이 방법은 진공으로 음경해면체를 팽창시키고 음경 뿌리에 링을 끼워 그 압력으로 발기를 유지시킨다. 여러 회사에서 진공흡입기를 생산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것이 라면 압력이 너무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대개 진공압이 225mmHg를 넘지 않게 고안되어 있다. 같이 공급되는 링은 회사에 따라 고유한 디자인으로 만들어져 있으나, 보통 신축성이 뛰어나서 해면체를 손상할 우려가 없고 요도를 보호할 수 있는 고무로 만든 제품을 사용한다. 흔히 도중에 발기력이 저하되는 10-20%의 사람들은 정맥 유출때문이라서 음경에 링을 끼우면 정맥 유출을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무슨 자기를 이용한 옥근(?)이라는 간단한 기구도 이러한 원리를 이용한 것이지만 정맥 유출이 없는 발기부전 환자들은 오히려 그 간단한 링때문에 발기 때 음경조작만 다치기 쉽다.

진공흡입기는 일단 값이 싸고 그다지 큰 부작용이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 효과면에서 별로 기대할 바가 못된다. 특히 우리나라 남성들은 파트너 앞에서 진공흡입기로 흡입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더더욱 권할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가장 효과적인 발기부전 치료 방법은 발기유발제를 쓰는 자가주사요법이다. 단, 발기유발제라 할지라도 요도로 삽입하면 효과가 적고 요도감염의 위험성도 있다. 늦어도 몇 년 안에 획기적인 발기유발제 약물이 나올 가능성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강력한 발기 유발제를 써도 별로 반응이 시원치 않은 15%의 환자들, 특히 당뇨로 인한 심한 발기부전에는 음경보형물 삽입수술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다. [7]

〈편집자 주 : 이 원고는 설현욱 박사의 인터넷 사이트(<http://sex-academy.com>)에 게재된 원고를 필자의 동의하에 실게 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02-512-1101)〉